



IMF, 유로존 재정위기로 유럽은행의 막대한 손실 경고

이정환 선임연구원

■ 최근 유럽은행들의 자금경색 논란이 지속되면서 유로지역의 CDS 프리미엄이 크게 상승하고 있음.

- 스위스중앙은행(SNB) 및 ECB의 미 연준 통화스왑이 재개된 가운데 Euribor-OIS 스프레드가 8월 26일 66bp로 지난 1연래 최고치를 경신함으로써 유럽은행들의 자금경색이 노출됨.
- ECB와 영란은행은 9월 종료 예정이던 통화스왑 약정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합의함.
- 8월 26일 현재 이탈리아(379bp), 프랑스(164bp), 스페인(378bp) 등의 CDS 프리미엄도 최근 들어 가장 높은 수준을 보임.

■ 또한, IMF가 유럽은행들의 재정위기 국가 국채 보유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된다는 보고서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짐.

- IMF의 금융안정보고서 초안은 재정위기 국가의 국채 보유로 유럽은행들의 손실이 예상되며, 이로 인해 이들 은행의 유형자기자본(TCE: Tangible Common Equity)이 2천억 유로(약 2,875억 달러, 기존 자본의 10~12%) 가량 잠식될 수 있다고 추정함.
 - IMF는 아일랜드, 그리스, 포르투갈, 이탈리아, 스페인, 벨기에 국채의 시장가격을 산정하기 위해 이들 국가의 CDS 프리미엄을 이용함.
 - 유형자기자본은 자본건정성을 측정하는 지표 중 하나로 총자본에서 우선주와 무형자산을 제외한 것임.
- IMF는 유럽은행들이 연쇄 부실화에 처한다면 파급 효과는 대폭 증가하여 손실이 2배 가까이 커질 수 있다고 언급함.

■ 그러나 ECB와 유로존 정부는 IMF의 피해 예상치가 편파적일 뿐 아니라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임.

- 스페인의 재무장관은 IMF가 추정된 손실 규모는 잠재적 손실을 전부 포함한 것이기 때문에 과대 추정된 측면이 있으며, 가격이 상승한 독일 국채 보유에 대해서도 고려하지 않았다고 반박함.
 - IMF의 과대추정은 2009년 10월에 발표된 금융안정보고서에서도 발생하였다고 주장함.
 - 2009년 10월 당시 IMF의 금융안정보고서는 유럽은행들이 금융위기로부터 8,140억 유로의 잠재 손실 중 3,470억 유로의 손실이 현실화되었다고 발표하였는데, IMF는 그 이후 잠재손실 규모를 25% 가량 축소 수정함.
- 유로존 정부는 IMF가 국제지급결제은행(BIS)의 데이터를 사용하였는데, 이는 2009년 말부터 2011년 여름까지 유럽은행의 손실에 대한 시장가치가 반영되어 있지 않다고 반박함.
- IMF의 최종 보고서가 앞으로 3주 후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실무자들과 이사진의 토론 결과에 따라 보고서의 내용이 일부 수정될 수는 있겠지만, 유럽은행들에 대한 강한 자본확충 요구는 변경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.

(Financial Times 8/3, Wall Street Journal 8/26, Bloomberg 8/26)